

# '흥부제' 축제 준비 만전

### 남원시, 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사랑의 광장 일원서

남원시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 까지 3일간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27회 흥부제를 '흥부가 돌아왔다'라는 테마로 알차고 신명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흥부제는 가을철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념, 공연/경연, 체험, 연계행사의 4개 분야 30개 종목의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흥(興)이 넘쳐나고 가득할 수 있도록 마미무, 하성운(위너원) 등의 개막 축하공연, 깊은 가을밤을 느끼게 해줄 흥부놀이 부락 한마당, 강남제비가 이야기하는 '흥부가 돌아왔다', 판소리로 들어보는 '흥부전 완창무대', 흥부가편을 쓰고 실력을 뽐내는 '흥부가왕', 태권도와 흥부의 만남 '퓨전 흥부전 소리극', 아동극 지지배배 지지배배, 청학동 훈장이 들려주는 '김봉곤 훈장과 국악자매', 흥이 넘치는 흥부가(興喜者) 밴드 스타피쉬, 거리마당극 노상놀이가 준비되어 있으며, 흥부거리에서는 코믹 차력쇼, 버스킹이 수시로 펼쳐진다.

또한 관광객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다양한 체험거리로, 가족 씬터 흥부놀이터와 대결 흥부놀이 명랑운동

회, 남원 특산품을 맛보는 부각페스티벌, 남원대표 참여형 공연 신관사 또 부인행차, 흥부네 꽃담장, 참여형 마당극 놀부보다 더한 응고집 놀이관이 관광객의 참여를 기다리며 한바탕 놀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흥부 나눔 정신을 이어가는 흥부사랑 떡 나눔 행사와 가족 간의 사랑과 이웃과의 따뜻한 정을 장려하기 위한 흥부가족상,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나눔장터 등의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이밖에도 제21회 흥부골남원농악경연대회, 제36회 남원예술제, 제27회

금과 강도근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가 함께 펼쳐지며 우리의 흥과 전통의 멋, 치열한 경쟁도 함께하는 신명나는 축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축제장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로, 월매야시장팀이 축제장을 찾아 관광객에게 색다른 먹거리를 제공하며, 속속농부들이 준비한 부각과 맛갈 나는 김치전도 있다.

이현재 남원시 관광과장은 "올 제27회 흥부제는 흥이 넘치는 공연, 다양한 체험거리, 풍성한 먹거리를 통해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한층 더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며, tta과 관광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 제27회 흥부제를 개최한다.

# 임실군 '군장병 지원서비스' 전국 확산

### 장병들 입소문 타고 주요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 호평

최근 국내 주요포털사이트 카페,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누리꾼들의 댓글이다. 임실군이 전국적으로 첫 시행하는 군부대 지원서비스에 대한 호평이 전국 장병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월 군부대의 평일 외출 전면 허용에 따라 임실군이 추진 중인 각종 군인할인 지원서비스에 수십만명의 공유와 댓글을 통한 호평이 쏟아지면서 '나리사랑, 임실군'의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임실치즈가 좋아요', '상생하는 임실', '다른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임실' 등 전국적으로 임실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지역 홍보효과를 특별히 거두고 있다.

군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장병의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월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면서 그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홍보 책자를 발간, 배포했다. 35사단 수료식 등에 배부되는 이 안내서에는 군장병 지원서비스 내용과 함께 멀리서 수료식에 방문하는 장병가족과 면회객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음식점 정보와 군인 면회객 할인, 민박·캠핑장 등 숙박업소의 정보가 담겨 있어 장병가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원혜택을 보면 화제가 될 만한 내용이 많다. 관내 주둔 외출 장병과 35사단 수료식 신병에게 각각 지원하는 2천원권(월2매/1인) 및 5천원권(1매/1인) 임실사랑상품권은 임실군에서 전국 최초로 군장병에게 지원하는 시책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병들에게 특히 인기이다.

군부대 모범 장병은 치즈체험과 119

안전체험 등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장병은 임실군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무료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축구장 등을 상시 이용하면서 체력단련과 건전한 병영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평일 외출장병을 위한 수송차량 또한 지원받는다.

여기에 오는 27일부터는 임실작은별 영화관에서 단돈 3천원으로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음은 물론 장병 외출시간에 맞추어 최신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35사단 수료식에는 장병가족과 면회객들은 국가무형문화재인 임실필봉농악의 수준높은 문화공연을 볼 수 있고, 임실군 자원봉사센터와 여성단체협의회 참여로 무료 음료봉사를 실시한다. 또한, 면회가족이 없는 신병을 대상으로 국립호국원과 임실여성단체협의회 참여로 임실투어 및 식사를 함께 하며 가족의 따뜻함으로 격려하기도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전통탁주 지란지교 제조장 임숙주씨(63)가 지난 25일 WITH 米 페스티벌에서 전통주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 서울 'WITH 米 페스티벌' 순창 전통탁주 지란지교, 우수상

### 순창군, 전통주 부문에서 제조장 임숙주씨 수상

"2015년 전통주 제조과정 교육을 통해 전통주를 알게 됐는데 이렇게 올해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전통주들과 견주 우수상까지 받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창 전통탁주 지란지교(탁주 13%) 제조장 임숙주씨(63)가 지난 25일 서울시와 NH농협이 공동주최한 'WITH 米 페스티벌'에서 전통주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서울광장에서 지난 25일과 26일 양 이틀간 우리 쌀 가공식품과 전통주를 테마로, 쌀을 이용한 우수한 가공식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수상으로 임 씨는 서울시장 상과 함께 부상으로 삼금 200만원을 수상했다.

임 씨는 전통주 장인으로 오랜기간 이 분야에 몸 담은 사람이 아닌, 전통주를 배운지 불과 4년만에 이뤄낸 성과라 이번 수상에 다

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임 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공무원으로 30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해, 지난 2013년 고향인 순창으로 귀농해서 무화과 농사를 짓고 있다.

귀농이후 지난 2015년에 순창군이 진행하는 전통주 제조과정 교육을 통해 전통주에 첫 발을 내디뎠다.

전통주 제조과정을 배운지 1년만인 2016년에는 대한민국 명주대 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바로 다음해인 2017년에도 순창 세계소스대회 전통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통주 분야에서 입지를 넓혀 나가고 있다.

임 씨는 "현재 농사를 짓고 무화과와 전통주를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를 점차 확대해 순창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농업대학, 현장중심 연수교육 실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운영하는 명품농업대학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 할 수 있도록 현장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현장실습교육 및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맞춤형교육으로 재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수교육에서는 생산과 재배 및 농산물을 가공하고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촌융복합산업에 성공한 농업법인 와이코리아를 벤치마킹

해 농촌체험관광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신품종 포도를 육성하는 기관과 재배 농가를 견학함으로써 쉼벨 위주의 재배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 애로사항을 선도농가 농장에서 문답식으로 교육 받고, 최신 농장시설을 견학하여 새로운 시스템 도입뿐 아니고 학생 상호간 정보교환이 활성화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교육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매아리

## 임실군의회, 이성재, 황일권의원 의원발의 조례안 대표발의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이성재·황일권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임실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임식스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처리했다.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을에 관동된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임실군의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황일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임식스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노약자, 장애인, 임신부 및 외국인 등이 임실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임식스테이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재·황일권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례 제정을 발의하였다며, 우리 군 의원 모두는 국민 복리증진과 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26일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문화재청, 만민 의사 순의제향 거행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6일 남원 만민의 총에서 정유재란 당시 왜적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만민 의사(萬人義士)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만민 의사 순의제향(殉難祭享)을 거행했다.

올해로 제422주년을 맞는 이번 제향에는 문화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전북도지사, 남원시장, 만민 의사 후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초헌례▲축문 낭독 ▲이헌례 ▲종헌례(終獻禮) 및 대동령 헌화(獻花, 문화재청장 대령) 순으로 진행되고, 남원시립국악원의 씻김굿과 보림 등의 추모공연 순으로 마무리되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남원고)의 대표 분향 및 자원봉사 참여로, 호국선열에 대한 애국정신교육장으로 만들어 졌으며, 육군 35사단 군악대 추모공연으로 한층 경건하고 품격 있는 만민 의사 순의제향 행사가 되었다.

만민의총은 정유재란 당시 최대 격전지인 남원성 전투에서 5만 6천여 명의 왜적과 싸우다 순절한 1만여 명의 민·관·군 의사를 모신 곳으로, 사적 제272호로 지정되어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